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SUNGKYUNKWAN UNIVERSITY	보 도 자 료	
	담당	
	참조	
	참조	

[자료문의]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김자림 (02-760-0788, 010-9219-785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주최

제6회 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8월 7일(금) ‘다문화 공생의 사회와 동양사상’이란 주제로 중국의 산둥대학 철학·사회발전 연구소, 일본의 동일본국제대학 동양사상문화연구소와 제6회 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의 목적은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폭력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며 공존할 수 있는가를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밝히려는 데에 있다.

유교문화연구소(소장 신정근 교수)는 그동안 유교와 학제간 연구, 유교윤리의 현대화를 선도해오면서 국내유일의 외국어 유교관련 학술지 국제판 『유교문화연구』를 발간함으로써 유교의 국제화에 기여하여 왔다.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유교연구의 지평을 넓혀온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존중, 배타가 아니라 상호 연대와 화합, 공존과 공생의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중국, 일본 학자들과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촌의 사회와 문화는 다문화(多文化)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한국도 다문화사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거론하여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는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문화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共存), 공생(共生)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의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갈등과 차별, 불협화음이 여전히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서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 평화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할 학자는 모두 12명으로 중국 측 발표자 5인, 일본 측 발표자 4인, 한국 측 발표자 3인으로 모두 12명의 학자들이 발표하게 된다. 일본 측 발표자 중 동일본국제대학 동양사상 연구소 마츠오카 미키오(松

岡幹夫)교수는 「‘나’라고 하는 우주-지구불교자들의 평화에의 어프로치」라는 글을 통해 범지구적으로 평화행진을 전개하는 세 명의 인물 달라이 라마, 틱낫한, 그리고 이케다 다 이사쿠의 사상과 행동을 예로 들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 의존되어 있고, 전 우주는 하나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을 자각한 사람이 붓다라고 하며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공존 공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의 쑹카위(宋開玉) 교수(산둥대학 철학과 사회발전연구소)는 ‘한어관화(漢語官話)의 1인칭대명사, 원대(元代)에서 청대(清代)의 변화 과정 고찰’이란 논문에서 원대에서 청대에 이르는 시기 언어의 변천과정을 통해 전통시대 중국사회의 언어가 다른 민족의 언어와 만났을 때 일어난 언어학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언어 안에 담긴 다문화의 공존과 흔적을 검토하려고 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철승 교수(조선대학교)가 ‘같음과 다름의 관계와 유가의 어울림 철학’을 통해 유가의 화(和)의 세계관이 어떻게 오늘날 현대의 다문화사회에 요청되는 윤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오늘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유교의 윤리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윤리로서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려고 한다.

강중기 교수(서울대학교)는 ‘량수밍 문화보수주의 현대적 의의’란 글에서 중국근대 사상가 량수밍을 통해 동서문화의 이질성을 파악하면서도 계승과 조화를 중시하면 동서문화 혹은 전통과 현대가 서로 조화로운 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동서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량수밍의 사상이 현대 다문화사회의 공생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이택용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타자에 대한 공자의 시각’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타자를 대우할 것인가를 공자의 시각에서 보여주면서 공자가 개인을 집단과 전체 속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개인의 차이와 자질, 능력을 중시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중국교포, 탈북교포 등으로서 구성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차이가 존중되는 공존과 공생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국가, 사회, 공동체가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상호 평화와 화합 속에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가를 물으며, 특히 동아시아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평화와 공존공생이 가능한가, 그 해법을 모색하는 깊이 있는 학술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8월 7일 (금) 09:0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별첨

1. 2015년 제6회 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2. 발표논문 요약문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8월7일 (金)	9:00~ 9:20 개회사: 신정근 소장 축 사: 마인섭 부총장	
	9:20~ 9:45 기조강연: 다문화사회 시대의 心の創世 발표자: 미도리카와 코지 이사장(동일본국제대학)	
	9:45~ 10:10 1. 주제: 試析本居宣長の神觀念 발표자: 牛建科(산동대학)	
	10:10~ 10:35 2. 주제: 從『老乞大』,『朴通事諺解』等朝鮮時代漢語會話 本看漢語人稱代詞的演變 발표자: 宋開玉(산동대학)	
	10:35~ 11:00 3. 주제: 論常燕生以‘生物史觀’爲基礎的新法治主義 발표자: 魏治勛(산동대학)	
	11:00~ 11:10 휴 식	
	11:10~ 11:35 4. 주제: 中國韓國儒學思想史研究的方法論問題 - 學術史的回顧 발표자: 李海濤(산동대학)	
	11:35~ 12:00 5. 주제: 한국어와 중국어의 禮義 문화적 특징 비교 연구 발표자: 朱明愛(산동대학)	
	12:00~ 13:30 점 심	
	13:30~ 13:55 6. 주제: 유가사상에서의 ‘나’ 와 ‘우리’ 발표자: 서경요(동일본국제대학)	
	13:55~ 14:20 7. 주제: ‘나’라고 하는 우주-地球佛敎者들의 평화에의 어프로치 발표자: 마츠오카 미키오(동일본국제대학)	
	14:20~ 14:45 8. 주제: 일본에 있어서의 유교의 역사와 현상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발표자: 모리타 미노루(동일본국제대학)	
	14:45~ 15:00 휴 식	
	15:00~ 15:25 9. 주제: 先秦社會에서의 忠 사상의 형성과 전개 발표자: 시로야마 타카노부(동일본국제대학)	
	15:25~ 15:50 10. 주제: 같음과 다름의 관계와 유가의 어울림철학 발표자: 이철승(조선대학교)	
	15:50~ 16:15 11. 주제: 량수밍 문화보수주의의 현대적 의의 발표자: 강중기(서울대학교)	
	16:15~ 16:40 12. 주제: 타자(他者)에 대한 공자(孔子)의 시각 발표자: 이택용(성균관대학교)	
	16:40~ 16:50 휴 식	
	16:50~ 17:50 전체 토론	
	17:50~ 18:00 폐 회	
	18:00~ 만찬	

【 발표 1 】

량수밍 문화보수주의의 현대적 의의

강중기(서울대 강사)

량수밍(梁漱溟, 1893-1988)은 문화의 세계성(보편성)과 구별되는 문화의 민족성(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서구중심적인 현대화론 혹은 유럽중심적인 역사문화관을 극복 하였다고 평가된다. 공시적으로 보면, 문화삼로향설은 상대주의적 문화가치론 내지 문화다원론에 기초한 문화유형론이다. 량수밍은 천두슈·후스 등의 서화파가 서양 근대문화가 중국문화 및 인도문화보다 진보하였다고 보는, 단선적 진화론에 입각한 문화일원론적 관점을 거부하고, 세 문화가 각기 나름의 존재가치가 있고 그들 사이에 진보와 낙후의 구분이 없다고 보았다. 단지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르므로 해결방법이 다르고, 그리하여 생활로향 혹은 근본정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文化三路向說)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면 문화삼로향설은 문화발전단계론으로서 동서문화 사이에 고하의 구별이 있다. 인류문화는 인류의 3대문제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중국문화와 인도문화는 인류문화의 조숙이다.(세계문화 三期重現說, 동양문화 早熟論)

량수밍은 문화삼로향설을 제시하여 서화파의 문화일원론에 반대하고 문화의 민족성을 강조하여 동서문화를 낙후한 고대문화(혹은 전근대문화)와 진보한 근대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였으나, 세계문화 삼기중현설과 동양문화 조숙론에서 다시 문화일원론에 따라 발전단계의 고하를 논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범하게 된다. 량수밍의 문화론에 내재하는 문화다원론적 유형론과 문화일원론적 단계론의 혼재라는 자기모순은 단계론에서의 단절과 지속이라는 계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문화발전단계에서 세계 삼대문화는 각기 다른 단계에 속하므로 일정한 단절(즉 이질성)을 함축한다. 그러나 발전단계에서 각 문화는 단절의 계기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로부터 필연적으로 계승하는 바(지속성)가 있기 마련이고 또 그럴 때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량수밍이 발전단계론에서 단절이라는 계기를 통해 동서문화의 이질성을 파악해내었다면, 계승이라는 계기에 의거하여 조화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승이란 측면에서 중국문화와 인도문화가 지닌 부족함 내지 불완전함은 서양문화와의 조화·융합을 주장하는 논거를 강화시켜 준다. 그리하여 량수밍은 동서문화의 근본적 이질성을 파악해낸 뒤에 양자가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동서문화 혹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량수밍의 문화보수주의는 단순히 자국문화를 보수하고 외래문화를 배척하지 않으며, 동서문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현대 다문화사회의 공생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 발표 2 】

타자(他者)에 대한 공자(孔子)의 시각

이택용(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전(全)지구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야흐로 ‘다문화’ 사회가 되었거나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종교·정파·연령’ 등의 기준에 의한 다양한 집단사회가 기존에 상충하여 왔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중국교포·탈북교포’ 등으로 구성되는 이질적인 집단사회가 출현하여 더욱 다기화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사회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타자(他者)’[집단으로서 타자] 및 이에 속하는 ‘개인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이해와 대우] 형성은 다문화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핵심에 해당한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타자를 대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논어』에 나타나는 ‘타자(他者)에 대한 공자(孔子)의 시선’을 통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공자는 ‘집단으로서 타자’에 대하여 도덕적·문화적 수준에 따른 차별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인간의 집단을 ‘여(女) vs. 남(男)’, ‘소인(小人) vs. 군자’, ‘호향(互鄉) vs. 기타 지역’, ‘제(齊) vs. 노(魯)’, ‘이적(夷狄) vs. 제하(諸夏)’ 등으로 구분하여[기존의 구분을 받아들여] 그들의 도덕적·문화적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원(中原) 외의 ‘집단으로서 타자’에 대하여는 내(內)집단문화를 준거로 타문화를 인식하는 태도를 취하여, 화이관(華夷觀)으로써 그들을 재단하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도덕적·문화적 수준이 성(性)이 아니라 습(習)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종주의적 혐의로부터는 자유로우며 ‘집단으로서 타자’ 역시 내집단처럼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는 판단을 드러낸다.

반면 공자는 ‘집단으로서 타자’에 속하는 개인에 대하여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개인적 요소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특정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출신계급·출신지·성별’ 등의 요인이 아니라 오로지 독립자로서의 인간에게 달린 덕(德)에 의하여 그를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 역시 내(內)집단문화를 준거로 타문화를 인식하는 ‘단일문화 인식론’적 태도를 보인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배제했다는 점 및 인간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면만을 개인의 평가요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휴머니즘(humanism)적 특성을 갖는다 하겠다.

공자는 ‘사람을 아는 것’[知人]을 ‘진정한 앎’[知]이라 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 및 대우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함의를 갖는다. 타자 인식에 있어서 공자는 비록 전근대인(前近代人)으로서 시대적 한계[단일문화 인식론]를 갖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탁월성[인종주의 배제, 객관성,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 발표 3 】

多文化時代の「心の創世」

緑川浩司(東日本国際大学)

1.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국제 사회는, 다문화가 공존 하지 않을 수 없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속에서도, 지방마다 다른 언어나 풍속습관, 식생활 등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에,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이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의 다문화의 공존에는 각양각색의 重大한 과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문화의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마찰·갈등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다문화의 공존이라고 해도, 원점은 각각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를 배경으로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이 초점이 된다. 그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 기반의 관점에서 공존의 본연의 자세를 모색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편 迂遠한 길과 같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王道이다.

2.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된 기반을 세웠을 때, 우리들에게 풍부한 지혜를 주는 것은, 수천년 역사의 시련을 견뎌온 儒學의 가르침이다.

儒學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더불어 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人倫의 道를 설명하고 있다. 애당초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동물이라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만, 儒學思想의 출발점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다른 사람과의 공존·공생을 전제로 한 삶의 태도라는 점이다. 인간은 나와 남이 동일한 德性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전제에 입각한다. 『논어』의 「덕을 베풀면 홀로 孤立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를 돕는 내 이웃이 있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은 그 것을 시사하고도 남는다. 儒敎에서 최고의 德目으로 여겨지는 것은 「仁」이다. 仁이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이지만, 결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피차의 개성을 서로 인정하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문화시대에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

3. 다른 사람과의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불가결한 태도는, 中庸의 道理이다. 사람의 마음은 私情이나 物慾에 현혹되기 쉬운 위태로움이 있어 불안정하다. 그것에 비해, 道理에 맞은 마음은 은미한 것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따라서, 人心과 道心を 소상하게 밝히면서, 하나로 통합하고,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즉, 人心과 道心の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모두 살리면서, 가장 적절한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執中」이라고 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것은, 「公益」과 「私利」의 분별 관계를 구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公」과 「私」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活私啓(開)公」의 道가 필요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야 말로, 그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이 타인과의 共同性에서 연마되고, 발휘되는 것에 의해, 한편으론 그것이 公共性を 여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自他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儒敎에서 말하는 「誠」이다. 『中庸』에 「至誠을 다하면 自我가 성취되고 타인 역시 성취되는 것을 成己成物이라 한다」라고 있다. 「誠」은 자신을 완성 시키는 것뿐만 아니다. 그 仁德이 다른 것에게도 完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他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의 同時的인 深化는,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를 살려 통합하는 원천의 힘이 되는 데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 발표 4 】

试析本居宣长的神观念

牛建科(山东大学)

本居宣长(1730—1801)是复古神道的集大成者,其神观念在某种程度上反映了复古神道神观念的特征。本居宣长对神的本意和所指做了界定,并对神灵系统进行了分类,区分了善恶,并且强调了天照大神的中心地位及其现实性和普遍性。本居宣长的神观念还反映了复古神道在应对外来文化和宗教上的价值观,在强调日本独自性的同时,在某种程度上反映了其民族意识的自觉。

【 발표 5 】

汉语官话第一人称代词从元到清的演变考察 ——以《老乞大》、《朴通事谚解》等朝鲜时代汉语会话本为例

宋开玉(山东大学)

从元代至元、至正年间到清道光年间,如《老乞大》、《朴通事谚解》、《训世评话》、《华音启蒙》、《象院题语》、《中华正音》、《关话抄略》、《汉谈官话》等一系列用汉语官话写成的会话课本成为近五百年间朝鲜朝野学习汉语的主要教科书。这些材料都是用当时的汉语官话写成,反映了那个时代的汉语的样貌,其中,《老乞大》、《朴通事谚解》、《中华正音》等会话本随着时代的推移、汉语的变化而多次修订,以准确掌握发展变化了的语言,这成为我们研究这一时期汉语官话演变的重要资料。通过对这些资料的用语进行比较研究,可以考察汉语词汇的历史演变。本文即以这些资料所使用的汉语第一人称代词为研究对象,说明这些材料所反映的由元到清近五百年汉语官话第一人称代词的发展变化状况。

利用朝鲜时期汉语学习会话课本研究汉语词汇(包括人称代词)的发展演变状况的文章较多,仅以人称代词研究而言,就有李文泽《〈老乞大〉的人称代词研究》(《汉语史研究集刊》第十三辑)、张晓宇《〈老乞大〉第一人称代词系统考察》(《楚雄师范学院学报》2013年7月),李泰洙《〈老乞大〉四种版本语言研究》也有所论及,但都是就一种材料或一种材料的不同历史时期版本的考察,其他材料往往作为参考,还没有一个充分利用所有材料进行整个时期全面考察的成果。

【 발표 6 】

儒家 思想에서의 ‘나’와 ‘우리’

徐 炯 遙(東日本國際大學)

人類는 처음부터 生物學的으로 人間을 獨立的으로 分類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人間이란 用語는 天地人 三才사상에서 人間세상을 뜻하는 天下세계와 地上세계와 같이 쓰였다. 天地自然과 천지 사이에 사는 인간은 매 한가지이라고 말하는 天人合一의 표현에서 보면, 天은 大宇宙요, 人은 小宇宙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님은 풀인 우주로서, 천지는 ‘保合太和’(周易)하고 人類는 ‘執中致和’(中庸)하여 一如終始하게 誠道로 一貫하는 存在라 한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은 독자적으로 運行, 流行, 交流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만상이 大和음을 前提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은 동물계 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顏淵이 ‘무엇이 仁함입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自己를 團束(約束) 自制하여 言語와 行動이 禮(待接)에 符合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仁함이다. 하루 같이 자기를 단속 자제하여서 言行이 예에 모두 맞게 한다면 天下도 仁함에 歸依할 것이다. 仁德을 修養함은 전적으로 자기자신에 의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의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論語>, 顏淵)

‘나’라는 존재는 自己와 他人을 分別해서 말하는 것이요 ‘우리’라는 존재감은 자타를 묶어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克己의 몸 己는 肉身的 私慾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요, 자타가 어울려 한마음이 되는 것이 仁이다. 爲仁의 仁字는 人을 반복해서 쓴 문자로서 人人의 복수형인 사람들 무리(衆)가 아니라 나와 타인이 화합하는 일체형으로서의 우리라고 풀이할 수가 있다. 우리의 결속을 방해하는 것은 자타간의 무리한 利慾과 欲心이요 서로간의 화해를 방해하는 것은 서운해 하는 怨望함이다.

仲弓이 “무엇이 仁함입니까” 묻자 孔子가 말씀하셨다. “出門하매 貴賓을 接待하듯 하며, 백성을 부리되 큰 祭祀를 받들어 모시듯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하고자 생각하지 않는 事情을 다른 他人에게 억지로 더해 주어서는 안된다. 國家 벼슬살이에서는 怨恨이 없어야 하고 가족 살림살이에서도 圓한이 없어야 한다.”(上同)

여기서 말한 것은 1은 敬愼이요, 2는 怨道요, 3은 无怨으로서 仁의 외적인 作用이다. 自他の 人間관계를 處理하는 데는 自我의 內在的인 善處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라는 分別心은 인간의 욕심에서 생겨 나는 것으로 養心함에 있어서 寡慾함을 最善으로 하며 자타가 인간다움으로 待對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발표 7 】

나라고 하는 宇宙 ——地球佛敎者들의 平和에의 어프로치——

松岡幹夫(東日本國際大學)

불불교에서의 「無我」, 「空」의 가르침은, 우리의 自我에게는 독립한 실체 등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自己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면, 결국 全宇宙는 하나인 것이다. 우리의 自己自身도, 그 본질은 全宇宙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 = Buddha는 〈나라고 하는 宇宙〉를 발견한다.

본 발표에서는 현대의 불교계에 있어 〈나라고 하는 宇宙〉의 자각에 서서, 지구 불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글로벌적인 평화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달라이 라마 14세(Dalai-Lama XIV), 틱낫한(Thich Nhat Hanh),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의 사상과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현대 티벳 불교의 지도자이다. 그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非暴力」과 「內的 평화」를 중시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류에게 공헌하는 불교를 지향한 것은, 인격적 주체를 불교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空空이란, 모든 것은 他物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나〉는 他物에 의존하며 존재한다. 그리하여 全宇宙의 사물은 하나로 결합된다. 달라이 라마는 〈나라고 하는 宇宙〉를 진정한 인격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인 틱낫한은, Engaged Buddhism(행동하는 불교)을 제창하고 있다. 그는 불교의 冥想이나 運數觀을 사회변혁에의 행동에 연결 짓는다. 「유심mindfulness」과 「상호존재interbeing」가 평화와 비폭력의 키워드가 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선 다른 사람에게의 동정이나 사랑의 情感이 자라난다. 우리는 「작은 自己」 안에 갇혀 「큰 自己」를 파괴하고 있다. 「내가, 강이 되어, 숲이 되어, 蘇聯의 시민이 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틱낫한은 말한다. 그도 〈나라고 하는 宇宙〉를 목표로 하는 불교자이다.

이케다 다이사쿠는 세계 192개국에 1200만명 이상의 회원을 지니는 創價學會의 지도자이다. 創價學會는 일본의 불교승·日蓮의 가르침을 신봉한다. 그 사상적 특징은 宿命의 轉換 ——인간 혁명——을 말하는 점에 있다. 因果에 自在한 妙法을 생명에 顯現하면, 사람들은 宿命의 쇠사슬을 끊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부터도 해방된다. 진정한 적은, 전쟁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인류의 宿命이다. 宿命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自立이며, 〈나라고 하는 宇宙〉에의 길이 된다. 이케다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류의 宿命을 응시한 평화 행동은 탈이데올로기적이고, 그는 동서냉전의 시대에 세계를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앞에서 言及한 세 명의 평화론은 반드시 한결같지는 않다. 달라이 라마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틱낫한은 社會奉仕나 抗議行動에 熱中하고, 이케다 다이사쿠는 이데올로기를 넘은 국제교류나 유엔 지원에 열심이다. 또, 달라이 라마는 「불교의 현대화」, 틱낫한은 「불교의 비불교화」, 이케다 다이사쿠는 「불교의 사회화」를 각각 추진해 왔다는 차이도 볼 수 있다. 〈나라고 하는 宇宙〉를 의치는 지구 불교자들의 眞價는, 확실히 지금부터 묻게될 것이다.